

2016년 해외투자 정보 현지조사 결과

1

현지조사 개요

□ 추진배경

- 주요 연안국에 대한 수산업 및 투자분야 등 해외수산투자 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해외투자 정보조사 추진
- 국가중요도 및 OFIS 구축현황 검토 등에 따라 모잠비크를 올해 조사대상국으로 선정
- 모잠비크 수산업·투자관련 자료수집, 전문가 동반 현지조사 추진

□ 현지조사 목적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및 수산양식개발원 등 관련기관 방문·면담
 - 수산업(어업, 양식, 가공, 유통 등) 및 투자진출 관련 정보 수집·문의
 - 모잠비크 투자진출 지원기관 방문·면담
 - KOTRA 마푸토 무역관, 한국 대사관 등 방문하여 투자진출 현황 및 관련 정보 수집
 - 모잠비크 진출업체 면담
 - 우리나라 기업의 모잠비크 진출현황 파악, 기업관계자 면담을 통한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등 현지화 정보 수집
- * 조사 효율성을 위해 '원양어업 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실시

□ 현지조사 개요

- 기간/장소 : '16.8.13(토)~8.21(일) (7박9일) / 모잠비크 마푸토, 베이라
 - 출장자 : KMI 조정희 실장, 해외수산협력원 강신원
- * (주)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동행

2

현지조사 일정

일 자	일 정	내 용
8.13(토)	16:40(SQ609)	인천(한국) 출발
	22:05(SQ609)	창이(싱가포르) 도착
8.14(일)	01:25(SQ478)	창이(싱가포르) 출발
	06:10(SQ478)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도착
8.15(월)	08:35(TM312)	요하네스버그(남아공) 출발
	09:35(TM312)	마푸토(모잠비크) 도착
	13:00	어항 및 부두, 창고, 어시장 견학
8.16(화)	10:00	한국 대사관 방문
	14:00	FAO 남서인도양수산물위원회(SWIOFC) 방문
	16:00	코트라 마푸투 무역관 방문
8.17(수)	10:00	모잠비크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IDPPE) 방문
	15:00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연구소(IIP) 방문
8.18(목)	06:35(TM1130)	마푸토(모잠비크) 출발
	08:10(TM1130)	베이라(모잠비크) 도착
	14:00	베이라 교민 수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 [업체 TG PESCAS, TG Marine 방문]
8.19(금)	08:15(TM0311)	베이라(모잠비크) 출발
	10:15(TM0311)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도착
8.20(토)	13:45(SQ479)	요하네스버그(남아공) 출발
8.21(일)	06:10(SQ479)	창이(싱가포르) 도착
	08:00(SQ600)	창이(싱가포르) 출발
	15:35(SQ600)	인천(한국) 도착

□ 모잠비크 일반현황

- (사회) 인근국가 중 유일한 포르투갈 식민지였기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도가 떨어지며, 1995년에는 영연방에 가입하였음
- (경제) 현재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부족하나,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등 자원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국가임
 - 전기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크며, 기계설비 유지를 위해 태양열 등의 활용을 권장함
- (투자) 모잠비크는 투자하기에 용이한 국가이나 외국인투자 과실 송금은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가능함
- (항공편) 수도 마푸투국제공항에 카타르 항공(Quatar Airways)이 개항되어 마푸투-인천 구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모잠비크 수산업 현황

- (일반) 2,800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서인도양에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존재하고 있음
- (어업) 3~4년 전에는 모잠비크 EEZ 내 저서어류를 위주로 어획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참치를 어획하고 있음
 - 참치, 전갱이, 오징어 등이 유망한 어종이나 수산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 통계도 부재함
- (양식업) 모잠비크의 내수면 양식업은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유망한 분야이나 양어 사료가 중요한 문제
 - * 잡어(trash fish)로 만든 사료를 모리셔스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정부는 양식 부지를 확보하는 등 양식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모잠비크 협력사항

- (정책) 모잠비크는 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추구하며, 향후 어업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램
 - 이와 관련,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육사업 참여 등으로 방한 시 수산관련 정부간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함

□ 주모잠비크 대사관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0:00~11:00 / 주모잠비크 대사관
- 참석자 : 주모잠비크 대사관 김홍수 대사, 김지훈 참서관,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기관소개) 해외수산협력원은 해외 수산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모잠비크 수산업 진출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정보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설명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관련 과제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본 정보조사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음
 - 삼문수산은 모잠비크 규정에 따라 1,500마력 이하의 어선 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어선은 150톤급 2척과 80톤, 70톤 등임
 - 모잠비크는 해안선이 길고 어자원이 풍부하며, 65%는 한국으로 수출하고 35%는 현지에서 소비하고 있음
 - (목적설명) 국내 모잠비크 정보가 부재하여 업계 진출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한 투자 정보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사관동향) 김홍수 대사는 모잠비크에 부임한 지 2개월 되었으며, 금년 한국 수출입은행의 켈리마네중앙병원* 준공식에 참석 예정임

- * 켈리마네중앙병원은 지난 1975년 모잠비크가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래 최대 규모의 현대식 병원으로, 전체 5천600만 달러의 사업비용 중 수출입 은행이 4천500만 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함
- (모잠비크현황) 이전에는 마푸토에서 베이라 이동 시 차편을 이용했으나, 현재는 내전으로 인해 비행 편으로 이동하고 있음
- (지리) 켈리마네의 주요 운송수단은 자전거이며, 범죄율이 낮고 쾌적한 지역이나 밤에는 위험할 수 있음
- 베이라는 주요 항구이며 회랑(corridor) 등 농업 지원을 요청함
- 현재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부족하나,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등 자원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큰 국가임
- (역사) 인근국가 중 유일한 포르투갈 식민지였기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도가 떨어지며, 1995년에는 영연방에 가입하였음
- 모잠비크는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1992년 마르크스주의 정부와 반공산주의자 세력들과의 오랜 내전 끝에 자본주의화 되었으며, 북한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당국 내에는 현재에도 북한의 의사들이 파견되어 있음
- (협력) 모잠비크는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당국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중국과 인도는 오래 전부터 모잠비크와 협력해 왔으나, 일본과 한국은 최근에 협력이 활성화되었음
- 모잠비크 공공주택부 국립수자원관리국(DNFRH)과 KOICA는 현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추진 중
- (종교) 모잠비크 북부는 무슬림, 남부는 기독교가 우세함

□ FAO 남서인도양수산물위원회(SWIOFC)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4:00~15:00 / SWIOFC 사무국
- 참석자 : Aubrey Harris 사무국장, 세계은행(World Bank)
Daroomalingum Mauree 조정관,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목적설명) 한국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대한 국가정보가 부족하여 당국 수산업 및 투자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 (기관소개) SWIOFC는 서부 인도양의 수산업을 관할하는 지역수산 관리기구로서, 회원국들은 동 위원회에 자국 어자원 양과 상태를 보고하고 있음
 - (어업) 3~4년 전에는 모잠비크 EEZ 내 저서어류를 위주로 어획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참치를 어획하고 있음
 - 오징어와 전갱이(horse mackerel)도 어획되나, 전갱이는 어기가 짧음
 - 또한, 모잠비크를 비롯한 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새우 자원량이 붕괴 중이며, 이는 글로벌 추세로 원인 분석 중
 - 모잠비크는 MSC 인증이 가장 큰 현안이고 북부로 갈수록 어종이 다양하며, 영세어민들은 생계 목적으로 어업하고 있음
 - (양식업) 모잠비크의 내수면 양식업은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유망한 분야이나 양어 사료가 중요한 문제
 - * 잡어(trash fish)로 만든 사료를 모리셔스에서 수입할 수 있음
 - 질병이나 부지 등 양식업에는 위험 요소도 많으며, 양식업으로 빈민층을 모두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함
 - 양식업 프로젝트는 종료 시 붕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됨

□ KOTRA 마푸투 무역관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6:00~17:00 / KOTRA 마푸투 무역관
- 참석자 : KOTRA 마푸투 무역관 김수형 과장,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목적설명) 해외 수산업진출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매년 1개국을 선정하여 수산업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투자) 모잠비크는 투자하기에 용이한 국가이나 외국인투자 과실 송금은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가능함
 - 북부에는 천연가스가 풍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3,820만 달러를 전액 투자하여 2014년 6월부터 가스 공급을 개시함
 - 현재 가스 가격이 떨어져 관련 메가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어 어려운 상황이나, 2~3년 후 가격이 오른다면 재기될 예정
 - 한편, 한국기업은 삼성, LG전자, 효성, KOICA, 수출입은행 등이 모잠비크에 진출하였음
 - (협력) 중국은 모잠비크에 차관 및 기부 등을 통해 타국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을 보이고 있음
 - JICA에서 건설한 어시장은 정가제로 운영하며 위생을 매우 중시하여 현지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함
 - (수산업) 당국에서 새우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곳은 모마(Moma)로 한국인 관련사업체(LEEMAR)의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음
 - 참치, 전갱이, 오징어 등이 유망한 어종이나 국내 수산 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 통계가 부재함
 - 모잠비크는 어획량이 적기도 하지만,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항구까지의 운반비용이 상당히 큼

□ LEEMAR Sociedade Comercial Imp. & Exp. Ida 면담

- 일시/장소 : '16.8.16(화) 18:00~19:00 / 모잠비크 한식당
- 참석자 : LEEMAR 이지한 부사장, KOTRA 김수형 과장,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업체소개) LEEMAR는 2008년 모잠비크에 진출하여, 남폴라(Nampula) 주의 모마(Moma)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업종 및 비중은 가공업 50%, 원양 외 기타 50%이며, 종사자는 한국인 3명, 현지인(외국인 포함) 30명
 - 품목은 새우 60%, 갈치 20%, 조기 20%의 비율로 생산·취급하며, 소형 FRP선박을 이용하여 어획하고 있음
 - (모잠비크현황) 한국 업체는 KOTRA 마푸투 무역관 내 사무소를 연간 400달러로 임대하는 등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국제공항에 카타르 항공(Quatar Airways)이 개항되어 마푸투-인천 구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 (인천→마푸투) 매주 화, 목, 일요일 출발, 오전 1시 20분 출발,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도착(총 비행시간 19시간 20분)
 - * (마푸투→인천) 매주 화, 목, 일요일 출발, 오후 3시 출발, 다음날 오후 5시 5분 도착(총 비행시간 19시간)

□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IDEPPE) 면담

- 일시/장소 : '16.8.17(수) 10:00~11:00 /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
- 참석자 : 국립소규모어업개발원 Rui M. M. Falcão 조정관,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기관소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 항만 등 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해외수산협력원은 한국의 해외수산자원개발 및 국제협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 (목적설명) 모잠비크의 수산업 현황을 청취하고자 방문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모잠비크 관련 책자를 제작할 예정임을 설명함
 - (모잠비크현황) 2,800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서인도 양에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존재함
 - 켈리마네에는 새우를 양식하는 외국인 업체가 있으나, 흰반점증후군 (WSSD, White Spot Syndrome Disease) 문제가 있음
 - 또한, 수산업에는 약 300,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모잠비크에는 노르웨이에서 자금 지원한 수산양식훈련기관이 있음
 - 어업 관련하여 마푸토에는 이미 선박이 많아 베이리가 유망함
 - (컨퍼런스소개)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아프리카에서 수산 컨퍼런스 개최 예정임을 설명하고, 개최 시 모잠비크 측의 참석 및 협조를 요청함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업연구소(IIP) 면담

- 일시/장소 : '16.8.17(수) 15:00~16:00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 참석자 : 해양수산부 Agostinho Salvador Mondlane 장관, Cláudia Tomás 과장, Eugénio de Amarante António 과장, Celso Lopes 사무관, 국립수산업연구소 Jorge Mário Mafuca 과장, 삼문수산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목적설명) 모잠비크에 한국의 대사관, 수출입은행, KOICA 등이 존재하나 수산 관련 관심 및 협력은 저조한 상황
 - 이번 정보조사로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나 업계에 모잠비크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작년에는 페루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페루로 광어 양식 등 진출한 바 있음
 - (컨퍼런스소개) KMI는 대륙별 거점국 중심으로 협력 중이며, 이전에는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모잠비크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협력이 시작되기를 희망함
 - 또한, 모잠비크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한하여 KMI의 교육사업 등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정책) 모잠비크는 환경적 개발을 통한 수산업 보존을 추구하며, 향후 어업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함
 - 한국도 모잠비크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베이라에서는 선박 수리를 위한 부두를 개발하고 있음
 - 모잠비크는 부지를 확보하는 등 양식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협력) 모잠비크는 수산업 관련 투자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방한 시 수산관련 정부간 MOU를 체결하기를 희망함

□ TG MARINE, LDA 및 TG PESCAS, LDA 면담

- 일시/장소 : '16.8.18(목) 14:00~16:00 / TG MARINE, LDA
- 참석자 : TG MARINE, LDA 정연국 대표, 이광석 부장, 이은희 과장, Archi Atsushi Endo, KMI 조정희 실장, 협력원 강신원 행정원
- 주요내용
 - (TG MARINE) 삼문수산의 수산물 가공업 관련 자회사로서 지분 한국 80%, 일본 20%의 형태로 투자하였음
 - 모잠비크의 베이라에서 백합조개를 가공하고 있으며, 주요자산은 수산물 가공 시스템과 냉동장치 및 냉동 창고
 - 종사자는 한국인 1명 및 현지인(외국인포함) 80명이고, 2015년에는 기존 사업 준비로 인해 수출 및 생산현황은 없음
 - (TG PESCAS) 마찬가지로, 삼문수산의 수산가공업 관련 자회사로서 100% 지분 투자함
 - 주요자산은 트롤선 8척 및 어업권 8종, 수산물 가공허가권(민어 30%, 새우 30%, 기타 40% 생산·취급) 및 가공공장
 - 종사자는 한국인 4명 및 현지인(외국인포함) 150명이고, 연간 50톤 생산하여 생산금액은 약 100천\$
 - (사업현황) 백합조개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도이며, 백합조개가 햇빛에의 노출 등으로 20% 가량 폐사하고 있어 하역 기계화를 통해 선도를 향상시킬 계획
 - 백합조개는 일본에서 1알에 1,000엔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일본까지 살아서 수출될 수 있도록 얼음이나 산소 주입 등 연구 중
 - 모잠비크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자연 환경이 좋아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기계설비 유지를 위해 태양열 등의 활용을 권장함